

2018학년도 유럽지역학 연계전공 논문 공모전

윈스턴 처칠의 제국 방위 전략

- 1909~1924년 공군에 대한 처칠의 인식을 중심으로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서정빈

윈스턴 처칠의 제국 방위 전략

- 1909~1924년 공군에 대한 처칠의 인식을 중심으로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서정빈

【 목 차 】

I. 서론	IV. 전략 폭격의 수행자
II. 해군의 전략적 보조자에서 육군의 대체자로	1. 변화하는 전선과 전략폭격 개념의 등장
1. 제국방위위원회와 해군비행전대의 창설	2. 전략폭격 전술의 발전
2. 새로운 제국 경찰로서의 공군	V. 결론
III. 제국 방위의 새로운 차원, 방공	참고문헌
1. 방공개념의 등장과 1918년 독자적 공군	
2. 1921년 공군 분리 문제	

I. 서론

20세기 전반 영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 중 19세기에 이룩한 해양 패권이 도전받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가장 가시적이고 중요한 변화였다. 2위와 3위 국가의 해군력의 합보다도 강한 해군을 유지해야한다는 영국의 ‘2국 표준주의(Two Power Standards)’ 기조는 해군에 대한 강력한 자부심의 표현이자 영국의 해양패권을 상징했다.¹⁾ 하지만 이제 독일과 미국 같은 2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열강들이 군비 경쟁, 특히 해군력 증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증기선, 철갑선 등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전함들이 등장하면서 영국의 해양 패권은 심각하게 위협 받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더해 제국 내부에서 영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자치령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20세기 영국은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여 표류하기 시작하였다.

1874년 태어난 윈스턴 처칠은 변화하는 영국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해군 제 1경²⁾, 전쟁장관, 공군장관, 군수장관, 그리고 재무장관 등 정부 요직을 지내고, 2차대전기 영국 수상을 역임한 인물이다. 정치인 외에도 군인, 그리고 작가였던 그를 제외하고 20세기 전반의 영국 제국 방위 전략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그에 대한 평

1) 박지향, 『제국의 품격』, 21세기북스, 2018, 154 쪽.

2) First Sea Lord, 해군성의 직급. 1805년 “First Naval Lord”라는 직함으로 시작하여 해군성의 수장을 지칭한다. 1904년 존 피셔가 이전의 직함을 “First Sea Lord”로 개정하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가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처칠의 삶을 다룬 전기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은 군사전략가로서 처칠의 면모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이다. 처칠은 전쟁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전략을 세우는 정부 요직을 몇 차례 역임하였고, 1차 대전과 2차대전기 영국군의 군사전략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특히 20세기 초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영국의 상황 속에서 처칠이 군사전략가로서 1차 대전 전후에 내세운 제국 방위 전략은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군사전략가 처칠의 면모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처칠의 군사전략에 대한 평가는 시기적으로는 크게 1차 대전기와 2차 대전기를 중심으로 나뉜다. 2차 대전 시기 처칠의 군사전략에 대한 평가가 그가 영국 수상이자 지휘관으로서 내린 결정과 전략, 그리고 그 결과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1차 대전 전후시기에 대한 평가는 주로 그의 제국 방위 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사뭇 다른 양상을 띤다.

크리스토퍼 벨, 니콜라스 램버트, 그리고 앨런 맬린슨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1차 대전 전후 처칠의 군사 전략에 대한 평가는 그의 해군 개혁에 대한 인식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벨과 램버트의 수정주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처칠이 기존의 거함거포 정책을 고수하고 보수적인 해군 개혁을 주도하였는지, 혹은 잠수함 전대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을 중심으로 좀 더 개혁적인 전략을 추구하였는지를 중심으로 그들의 평가가 나뉘고 있다.³⁾

하지만 처칠의 제국 방위 전략을 해군 개혁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평가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20세기에 등장하여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던 항공 산업과 공군력에 대한 처칠의 관점은 그의 제국 방위 전략을 바라봄에 있어서 해군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요소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에 따라 안토니 커밍⁴⁾과 데이빗 이안 홀⁵⁾이 20세기 영국의 공군 및 공군 전략의 발전을 다룬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해군비행전대부터 2차 대전까지 영국 공군과 공군전략의 발전을 개략적으로 살피고 있다. 하지만 커밍과 홀의 연구에서 영국 공군과 공군전략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던 처칠의 공군전략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처칠과 공군의 관계를 다룬 연구자로는 빈센트 오렌지⁶⁾를 꼽을 수 있다. 오렌지의 저서는 1914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처칠과 영국 공군의 관계를 시대순으로 다루며 특히 처칠과 주요 공군 파일럿 및 사령관들 사이 관계에 주목한다. 즉, 오렌지의 연구는 공군을 중심으로 한 처칠의 전략을 살피다가 보다는 공군의 발전 과정 속에서 처칠과 사령관들이 어떤

3) Christopher M. Bell, "Sir John Fisher's Naval Revolution Reconsidered: Winston Churchill at the Admiralty, 1911-1914", *War in History* vol. 18(3), 2011.

Nicholas A. Lambert, "On Standards: A Reply to Christopher Bell", *War in History* vol. 19(2), 2012.

4) Anthony J. Cumming, *The Battle for Britain: Interservice Rivalry Between the Royal Air Force and the Royal Navy, 1909-1940*, US Naval Institute Press, 2015.

5) David Ian Hall, *Strategy for Victory: the development of British tactical air power, 1919-1943*,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8.

6) Vincent Orange, *Churchill and His Airmen: Relationships, Intrigue and Policy Making 1914-1945*, Harvertown : Grub Street Publishing, 2013.

관계를 유지해 나갔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1차 대전 이전, 1909년부터 처칠은 제국방위위원회(Committee of Imperial Defence, CID)등 공식석상에서 공군력의 중요성과 미래전력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역설하기 시작했으며, 해군비행전대(Royal Naval Air Service, RNAS)의 창설을 주도하였다. 처칠은 또한 1차 대전기 채플린 비행선을 이용한 독일군의 영국 본토 폭격이 이루어지며 본토 방위의 무대가 바다에서 하늘로 확장되고, 방위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할 때 공군력을 중심으로 한 방위 전략을 가장 앞장서서 지지하였다. 나아가 전쟁 말에 처칠은 공군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공군장관직에 임명되면서 1918년에 막 창설된 공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전략폭격이라는 새로운 전술개념을 발전시켰다. 이렇듯 처칠은 1930년대 공군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미래 제국 방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공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제국 방위 전략을 살펴볼 때, 그리고 군사전략가로서 처칠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의 해군 개혁뿐만 아니라 공군에 대한 그의 인식까지 검토해야만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처칠은 자신의 제국 방위 전략에서 공군에 대한 비중을 해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두고 있으며, 오히려 미래의 제국 방위에서는 공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선구자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해군 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1차 대전기 군사전략가 처칠에 대한 기존의 평가가 가지는 한계를 넘어, 처칠의 제국 방위 전략에서 공군에 대한 인식이 해군과 동등한 수준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즉, 군사전략가 처칠은 제국 방위에서 공군을 해군만큼 비중 있게 다루었고, 공군전략에 대한 그의 이해가 군사전략가로서 처칠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고는 처칠이 공군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영국 공군력 증강을 위해서 그가 어떤 노력을 전개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필 것이다.

공군에 대한 처칠의 인식과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고는 그의 전략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해군의 전략적 보조자로서의 공군, 둘째, 방공이라는 제국 방위의 새로운 차원 속 전략적 자산 공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 폭격이라는 새로운 전술의 수행자로서의 공군이 그것이다. 기존의 연구가 영국 공군의 발전 과정 혹은 처칠이 공군과 맺은 관계를 서술하면서 처칠의 다양한 공군 전략들을 단편적으로 다루었다면, 본고는 처칠의 제국 방위 전략의 발전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본고에서 분류한 세 단계는 각각 공군전략이 소극적 수준에서 적극적 수준으로 확대되고 강화되어가는 양상을 집중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II. 해군의 전략적 보조자에서 육군의 대체자로

윈스턴 처칠이 처음 정치 무대에 등장한 것은 1900년, 25세의 나이로 올드햄에서 보수당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였다. 그는 보수당원이었지만 정치신인으로서 다양한 안건에서 보수당

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표를 던지는 과감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군비 축소 문제와 관련하여 그는 보수당의 입장과는 다르게 찬성표를 던진 18명의 보수당원 중 한 명이었다. 그가 내각에 입성한 것은 1905년 식민성 차관에 임명되면서였다. 식민성을 시작으로 처칠은 1908년에는 상무부(Board of Trade) 장관직을 맡았고, 1910년 2월에는 내무장관직에 임명된다. 하지만 군사전략가로서의 처칠의 커리어는 그가 1911년 해군 제 1경의 자리에 오르면서 시작되었다.

처칠이 군사전략가의 길에 들어서기 이전 1903년 12월 1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키티호크(Kitty Hawk)에서는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비행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최초의 비행기는 군사적인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에서 당시 미국을 포함한 열강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⁷⁾ 그러나 20세기 초 항공 산업은 조금씩 발전을 이루어나갔고, 1907년에 이르자 비행기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리게 되었다. 처칠은 이 시기 항공 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처음 접하였고, 그의 초기 공군 전략인 ‘전략적 보조자로서의 공군’ 개념을 점차 발전시켜나간다.⁸⁾

1. 제국방위위원회와 해군비행전대의 창설

항공 산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바라보는 윈스턴 처칠의 관점은 1909년 2월 25일 제국방위위원회(Committee of Imperial Defense, CID)의 항공분과위원회(Sub-Committee on Aerial Navigation)에서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한다. 당시 미국을 시작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종 비행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영국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해군과 해군 군비 문제였다. 하지만 처칠은 제국방위위원회에서 공군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다. “현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항공산업의 문제는 우리가 다뤄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미국의 오빌 라이트씨에게 연락을 하여 그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⁹⁾ 1909년에 처칠은 이미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항공 산업과 항공기의 가능성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1908년과 1909년 7월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비행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소식은 처칠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충분했다. 이 시기부터 윈스턴 처칠은 새로운 차원인 하늘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제국 방위 전략을 수립해나갔다.

1908년 독일의 채플린 비행선 실험 성공은 이제 영국 해안의 해군 시설이 독일 비행선의 공격 사정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한다. 처칠의 첫 공군전략은 어떻게 독일군 비행선의 위협으로부터 영국 해군을 지켜낼 것인가라는 해군의 보조자의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처칠이 구상하던 전략은 1911년 그가 해군성 해군 제 1경의 자리에 오르며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어서 정책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영국에서는 독일의 비행선 공세에 대비해서 영국도 자체적으로 비행선을 제작해야한다는 의견이 등장하였고, 실제로 해군 비행선이 제작되

7) James T. Lowe, *A Philosophy of Air Power*,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4, p. 61.

8) Lowe, *A Philosophy of Air Power*, p. 64.

9) Randolph S. Churchill, *Winston S. Churchill: Young Statesman, 1901-1914 (Biography Book 2)*, Rosetta Books, 2015, p. 688.

고 있었다.¹⁰⁾ 처칠도 처음에는 비행선을 개발해야한다는 의견과 전투기를 개발해야한다는 의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1911년 해군 제 1경에 처음 취임하고 나서 그는 해군이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 혹은 공기를 데워서 발생하는 부력을 이용해 하늘을 나는 비행선이 아닌 날개를 이용해 발생하는 양력을 통해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제작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¹¹⁾ 영국 해군은 육군과는 다르게 그들의 비행기를 왕립 비행 공장(Royal Aircraft Factory)가 아닌 다양한 사기업들에 주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영국 항공 산업을 점차 빠른 속도로 경쟁하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항공 산업의 발전에 따라 비행기 제작 기술이 발전하자, 처칠의 공군 전략도 명확한 방향을 잡게 된다. 이제 처칠을 비롯한 해군성은 비행기를 이용하여 비행선의 상부를 타격하여 비행선 자체를 폭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나아가 비행선의 이동 및 임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비행선이 오기를 기다리는 지상의 대공포대가 아닌 직접 비행선을 찾아서 타격할 수 있는 비행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¹²⁾

명확한 전략 방향이 형성된 후 처칠은 해군비행전대(Royal Naval Air Service, RNAS)의 창설로 나아간다. 비행전대를 위한 처칠의 기획은 1911년 그가 처음 해군 제 1경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해군과 처칠이 기획했던 공군전략은 육군의 전략과는 큰 차이를 가진, 미래의 가능성에 더욱 초점을 맞춘 전략이었다. 육군의 경우 비행기가 정찰 임무를 보조하는 것이외에는 쓸모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처칠을 필두로 한 해군은 비행기가 더욱 공격적인, 예컨대 폭격이나 기관총 사격과 같은 직접적인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으며, 이는 훗날 창설되는 해군비행전대의 주요한 실험이자 훈련이 되었다.¹³⁾ 하지만 당시 상당한 재정 압박을 느끼고 있던 영국 정부, 특히 재무부는 해군비행전대 창설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는 처칠의 의견을 두 번 기각하는데, 처칠은 끈질긴 요청 끝에 당시 재무장관 로이드 조지로부터 예산안을 승인 받을 수 있었다.

처칠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서 해군비행전대는 1914년 드디어 정식 단체로 출범하게 되었다. 1914년 5월에 해군비행전대는 총 55대의 수상비행기, 35대의 복엽기¹⁴⁾, 그리고 5대의 단엽기를 보유하고, 이외에도 45대의 수상비행기와 5대의 복엽기가 추가로 제작될 예정이었다.¹⁵⁾ 처칠이 세운 해군비행전대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이다. 이는 첫째, 영국 해안의 저유소, 저탄소, 그리고 항만시설과 같은 해군 기간시설의 방어와 둘째, 적 함대에 대한 정찰 및 공격임무였다. 즉, 해군비행전대를 바탕으로 한 처칠의 초기 방위전략에서 공군의 역할은 아직 해군의 임무를 보조하는 데 머물러있었다. 특히 해안 기간 시설 방어의 경우, 이후 등장하는 독립적인 공군이 수행해야할 방공 전략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했다. 이후에 등장하는 방공 개념이 제

10) Eric Grove, "Seamen or Airmen? The Early Days of British Naval Flying", Tim Benbow, *British Naval Aviation: The First 100 years*, Routledge, 2011, p. 22.

11) Vincent, Orange, *Churchill and His Airmen: Relationships, Intrigue and Policy Making 1914-1945*, Harvertown : Grub Street Publishing, 2013, p. 16.

12) Orange, *Churchill and His Airmen*, p. 18.

13) Martin, Gilbert, *Churchill: A Life*, p. 240.

14) 날개가 위아래로 두 쌍이 달려있는 비행기를 일컫는 말. 반대로 날개가 한 쌍만 있는 경우 단엽기라고 불린다.

15) Eric Grove, "Seamen or Airmen? The Early Days of British Naval Flying", Tim Benbow, *British Naval Aviation: The First 100 years*, Routledge, 2011, p. 24.

국 전역을 적 비행선 및 항공기의 공격 및 폭격으로부터 지키고 영국의 하늘에 적기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더욱 확장된 의미를 지녔다면, 해군비행전대의 해안시설 방어는 말 그대로 해군시설에 대한 적 비행선의 접근을 방지하는 데 국한되어있었다. 이는 아직까지는 공군이 해군의 수월한 임무 수행을 위한 보조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며, 처칠의 전략 또한 보조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밝힌다. 적 함대에 대한 정찰 및 공격 임무도 아직까지는 독자적으로 전쟁의 한 국면을 담당하기는 부족한 공군과 항공 산업의 모습을 보여준다. 1915년 4월 3일 해군성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잠수함을 이용한 어뢰 공격이 훨씬 효과적이었으며, 해군 안에서도 비행기를 이용한 공중공격 전략을 폐기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하지만 이 회의에서 처칠은 공중발사 어뢰공격의 숙련도가 아직 부족하니, 숙련도 향상을 위한 훈련과 이를 위한 더 발전된 기체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¹⁷⁾

공군에 대한 처칠의 인식은 해군비행전대의 전략을 바탕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때까지는 공군이 해군의 보조자 수준이라는 정도이다. 하지만 동시에 1915년의 회의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는 항공 영역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공군이 단순한 보조자라는 그의 인식은 점차 변화하였고, 1918년 12월 29일 로이드 조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훗날 비행기가 수많은 전함을 대체할 것”이라고 적기도 하였다.¹⁸⁾ 따라서 1차 대전 이후에는 독자적인 작전 주체로 방공과 전략폭격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 전략이 처칠의 방위 전략에서 주를 이루게 되었다. 그에 따라서 보조자로서의 공군 전략은 힘을 잃고 제국 경찰로서의 공군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변모하게 된다.

2. 새로운 제국 경찰로서의 공군

제국 방위에서 공군을 제국 경찰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은 공군이 해군의 항만시설이 공격받을 때 이를 방어하는 것을 돕는 수동적 보조자의 역할에서 육군이 수행하던 임무를 대신하는 적극적 보조자 혹은 대체자의 지위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처칠이 처음 공군의 제국 경찰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것은 1914년 3월 소말리랜드에서 무함마드 압둘 하산의 반란이 일어나면서부터였다.¹⁹⁾ 하지만 아직 이 시기의 구상은 단순히 공군이 육군의 임무수행을 돕는다는 보조자 수준의 구상이었다. 즉, 해군비행전대의 설립이 이루어지던 시기, 육군의 영역에서도 공군이 해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략적 보조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초기 전략은 공군력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되어 나간다. 공군력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 처칠은 “공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제국의 곳곳에 주둔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발전시킨다.²⁰⁾ 당시 영국은 제국 방위 예산 문제라는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점점 늘어가는 군비에 정부와 여론은

16) David Gates, and Ben Jones, *Air Power in the Maritime Environment*, Routledge, 2016, p. 33.

17) Gates, and Jones, *Air Power in the Maritime Environment*, p. 33.

18) Martin, Gilbert, *Churchill: A Life*, Holt, 1992, p. 244.

19) Orange, *Churchill and His Airmen*, p. 115.

20) Orange, *Churchill and His Airmen*, p. 117.

군비 축소를 요구하고 있었고, 처칠과 같은 실무자들은 예산을 어디에서 줄여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 처칠은 육군이 맡고 있는 제국 경찰 역할을 공군이 담당할 것을 제안한다. 소소의 공군만으로도 육군이 기존에 수행하던 경찰 임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비행기를 처음 접하는 반란 세력이 여기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따라서 1919년 이집트를 시작으로 중동, 그리고 인도와 극동까지 공군이 배치되었고, 이들은 효과적인 ‘경찰’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경찰의 측면에서 공군 전투기 1대가 기병 한 개 대대에 맞먹는 효율을 제공하며 공군은 영국의 식민지 통치에서 육군을 대체하는 제국 경찰력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²¹⁾ 1921년 이라크에서 공군의 경찰 업무가 예산 절감 측면에서 처음 진가를 보인다. 1920년 영국의 이라크 위임통치가 이라크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며 무력 충돌이 벌어졌는데, 이 반란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육군과 더불어 4개 비행중대가 파견되었다. 이라크에 파견된 공군은 경찰임무 외에도 적군에 대한 폭격, 포위된 영국군 진지에 대한 공중 보급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영국군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란을 진압할 수 있게 도왔다. 반란이 진압된 이후인 1921년에 처칠은 “안전이 확보된 곳에 공군기지를 건설하여 막대한 병력과 예산을 필요로 하는 지역 경찰 임무를 맡기자”고 제안한다. 이에 따라 5개 공군 비행중대가 육군을 대체하여 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덕분에 영국은 이라크에서 매년 2백만 파운드의 예산을 차지하던 33개 육군대대를 철수할 수 있었다.²²⁾ 공군이 성공적으로 육군을 대체하는 제국 경찰로 자리 잡으며, 이제 처칠의 공군 전략에서 공군은 수동적인 보조자에서 적극적인 대체자로 그 위치가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다.

Ⅲ. 제국 방위의 새로운 차원, 방공

독일의 비행선으로부터 저유소와 항만시설을 방어해야한다는 주장은 제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제기되었다. 하지만 제 1차 세계대전 발발한 이후 독일 비행선의 영국 폭격이 실제로 이루어진 뒤에야 하늘이 새로운 차원의 전장으로 상정되고 방공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방공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방위 개념이 등장한 과정과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 공군의 창설된 과정을 살피고 처칠의 공군 방위 전략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방공개념의 등장과 1918년 독자적 공군

처칠은 1915년 처음으로 독자적인 공군성과 공군의 창설을 요구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독일 채플린 비행선의 공세는 영국 내에서도 공군성의 필요성을 불러일으켰고,

21) J. S. Corum, “The RAF in imperial defence”, Greg Kennedy, *Imperial Defence: The Old World Order, 1856-1956*, Routledge, 2008, p. 156.

22) Orange, *Churchill and His Airmen*, p. 119.

당시 대표적인 항공산업 발전 주창자였던 처칠이 공군장관으로 거론되기도 하였다.²³⁾ 처칠 또한 해군성을 떠난 직후인 1915년 5월 당시 수상이었던 애스퀴스에게 공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당시 해군비행전대를 중심으로 영국 항공력을 장악하고 있던 해군은 독자적인 공군성과 공군의 창설에 반대하였고, 여기에 예산 문제가 더해지면서 1915년에는 공군성의 설립이 기각되었다.²⁴⁾ 공군성 설립 기각 소식을 들은 처칠은 하원 항공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하는 한편, 정부의 우유부단함을 한탄하였다.²⁵⁾

전쟁이 심화되면서 독일의 공세 또한 한층 강해져갔다. 채플린 비행선으로 시작된 독일 공군의 공격은 1917년에 이르면 고타 폭격기(Gotha G.IV)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최대 1000파운드의 고폭탄을 적재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이 폭격기는 1916년 처음 비행을 시작하여 1917년에 이르면 영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진행한다. 1917년 6월 13일 정오, 고타 폭격전대가 런던 대공포대망을 뚫고 에섹스 상공에 등장한다. 곧이어 폭격이 시작되었고, 로얄 알버트 항구와 이스트햄이 화염에 휩싸였고,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²⁶⁾ 런던교외가 독일 폭격기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이 사건은 당대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공군성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1917년은 처칠이 다시 정치 무대에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영국 정부에서 가장 생산적인 부처라고 불리는 군수부(Ministry of Munitions)에서 장관직을 맡게 된 처칠의 제국 방위 전략 또한 이 시기 큰 전환점을 맞이한다. 군수장관의 자리에 오른 뒤에도 공군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역설하는 그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공군 전략에는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제 1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의 폭격과 그 피해는 방공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전략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제 단순히 해군비행전대를 바탕으로 해안선을 방어하는 것으로는 적 폭격기의 대도시 위협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해군비행전대를 바탕으로 해군의 보조자라는 인식에 머물렀던 처칠의 공군전략은 이제 독자적인 공군을 바탕으로 공군이 새롭게 부상하는 제국 방위 무대의 독립적인 작전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나아갔다.

1917년 6월 독일 공군의 주간 폭격 이후 영국 정부는 곧바로 제국 전시내각의 일원이었던 얀 스미츠 장군에게 공군작전과 방위작전의 문제점을 다루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다. 8일 만에 작성된 스미츠의 보고서는 당시 영국의 공군력이 육군과 해군에게 각각 나뉘어 예측되어 있는 문제점을 짚어내었고, 그의 보고서는 곧바로 채택되어서 육군, 해군과 동등한 하나의 작전 주체인 독자적인 공군이 만들어졌다.²⁷⁾ 스미츠의 가까운 친구였던 처칠 또한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가 채택되어서 곧바로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다.²⁸⁾ 1917년 12월 드디어 공군성이 설립되었고, 이어서 1918년 4월에

23) Anthony J. Cumming, *The Battle for Britain: Interservice Rivalry Between the Royal Air Force and the Royal Navy, 1909-1940*. US Naval Institute Press, 2015, p. 22.

24) Geoffrey Till, "Competing Visions: The Admiralty, the Air Ministry, and the Role of Air Power", Tim Benbow, *British Naval Aviation*, p. 49.

25) Cumming, *The Battle for Britain*, p. 22.

26) 위의 책, p. 20.

27) Lowe, *A Philosophy of Air Power*, p. 73.

28) Lowe, *A Philosophy of Air Power*, p. 73.

는 왕립비행단과 왕립해군비행전대에서 독립된 공군(Royal Air Force, RAF)가 창설되었다. 처칠의 독립된 공군성과 공군에 대한 지지는 그의 공군전략 속에서 강조점이 보조자로서의 공군에서 독립된 작전주체로 옮겨갔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1921년 공군 분리 문제

1921년 공군 분리 문제는 처칠의 공군전략에서 보조자의 개념은 완전히 힘을 잃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1918년 독자적인 공군의 설립 이후에도 처칠은 그의 정치적 삶 속에서 계속해서 공군과 관련된 직책을 맡았고, 공군 정책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졌다. 군수장관 이후 처칠은 1919년 육군장관을 맡는 동시에 공군장관을 겸직한다. 이 시기 그의 아내 클레멘타인 처칠은 편지에서 “공군장관직을 포기하고 육군장관직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직책을 모두 맡으려다 오히려 모든 걸 망치고 신망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라고 조언하기도 한다.²⁹⁾ 하지만 처칠은 이러한 아내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공군장관직을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이전부터 도전해오던 비행조종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때에도 계속해서 비행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1919년 7월 18일 비행기 추락 사고를 경험한다.³⁰⁾

처칠이 1919년 공군장관을 맡게 된 것은 공군에게 있어서 큰 행운이었다. 독자적인 공군이 설립된 이후에도 육군과 해군은 지속적으로 독립된 공군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처칠은 이러한 공군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1919년 1월 “공군은 육군과 해군 사이에서 그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주체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해 2월에는 “공군을 다시 육군이나 해군 편제 아래로 편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독자적 공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³¹⁾ 또한 처칠은 공군장관 직책을 맡으면서 공군의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군만의 계급체계와 제복을 만들 것을 주문하는 등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이어나갔다.³²⁾ 처칠의 이러한 행보는 앞서 언급한 그의 전략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차 대전을 계기로 처칠의 공군전략에서 강조점은 이제 적 폭격기의 공격을 막는 방공 작전과 적진 후방 핵심 군사시설 및 통신시설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는 전략폭격 작전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작전은 공군이 독자적인 작전수행의 주체가 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공군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갔다.

1921년에 이르러 정부는 공군에게 기존 해군비행전대 소속 비행기와 조종사들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린다.³³⁾ 정부의 결정은 해군과 해군성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타격이었다. 1918년 4월까지 해군비행전대는 3,000대의 비행기와 55,000명의 조종사, 정비사 등 인적 자원으로 이루어져있었다.³⁴⁾ 이러한 상당한 전력이 한 번에 해군의 관리에서 벗어나 공군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해군성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해군은 즉각적으로

29) Gilbert, *Churchill: A Life*, p. 413.

30) Gilbert, *Churchill: A Life*, p. 414.

31) Orange, *Churchill and His Airmen*, p. 110.

32) Orange, *Churchill and His Airmen*, p. 112.

33) Herman, Arthur, “The ‘Myth’ of British Seapower”, *Orbis* vol. 49(2), 2005, p. 348.

34) Arthur, “The ‘Myth’ of British Seapower”, p. 348.

이러한 결정에 반발을 하고 나섰지만 정부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처칠 또한 이 결정을 지지하였고, 나아가 새로운 비행기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해군에 나누어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공군력을 관할하는 공군에게 지급되어야함을, 그리고 공군성 사령 부가 작전 기획 및 작전 수행에서 간섭받지 않아야 함을 주장하였다.³⁵⁾ 1921년의 공군분리 정책은 처칠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 또한 공군의 독자성과 독자적 작전수행능력의 필요성을 인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IV. 전략 폭격의 수행자

제 1차 세계대전은 기술적 측면에서 이전 전쟁들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었다. 특히 하늘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전장이 열리게 된 이 전쟁을 바탕으로 전략폭격이라는 새로운 전술개념이 등장하였다. 전략폭격이 체계적인 작전으로 정리된 것은 이탈리아의 군인 줄리오 두에가 쓴 『제공권』(The Command of the Air)이라는 책을 통해서이다. 이 책에서 두에는 전략폭격을 적의 전술수행능력과 전쟁의지를 제거하기 위해 적의 주요 도시 및 생산시설, 통신시설, 정치·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공군의 폭격작전이라고 정리하였다.³⁶⁾ 즉, 이는 육군이나 해군을 보조하기 위한 적군에 대한 폭격인 전술폭격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략폭격을 통해 공군은 최초로 독자적 작전주체의 지위에 오른다. 이 장에서는 처칠이 어떻게 영국 공군을 전략폭격의 수행자로 상정하며 그의 공군전략 중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켰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변화하는 전선과 전략폭격 개념의 등장³⁷⁾

처칠의 전략폭격 개념은 1917년 10월 21일 그가 전쟁 내각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최초로 등장한다. 이 보고서에서 처칠은 향후 전쟁의 양상에 대한 자신의 안목을 내비치는 동시에 독립적인 공군 폭격기 전대의 필요성을 언급한다.³⁸⁾ 그는 특히 1차 대전 이후로 변화하게 된 전선의 양상에 주목한다. 처칠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쟁의 핵심은 기동(manoeuvre)에 있다. 이때 기동은 적 병력에 대한 기습이나 적 후방을 교란하는 작전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1차 대전에 이르며 이러한 기존의 기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³⁹⁾ 보고서에서 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현대전에서는 전선이 알프스 산맥에서부터 대양으로까지 이어지며 더 이상 적을 우회하여 후방을 치는 기존 형식의 기동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독일군은 우리를 바다 아래에서부터 타격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때 독일군이 그들의 잠수함을 건설하는 데 투자하는 비용과 우리가 이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쏟는 비용의 차이를 비교해 본

35) Arthur, “The ‘Myth’ of British Seapower”, p. 348.

36) 김태우, 『폭격』, 창비, 2013, 28 쪽.

37) 이하의 서술 중 전략폭격에 관한 처칠의 보고서를 다룬 내용은 제임스 로우의 *Philosophy of Air Power* 3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38) Lowe, *A Philosophy of Air Power*, p. 76.

39) Lowe, *A Philosophy of Air Power*, p. 76.

다면,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알 수 있다.”⁴⁰⁾

처칠은 이어서 그의 보고서를 통해 영국 또한 독일처럼 적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와 같은 기동이 불가능한 현대전에서 그는 독립적인 공군 폭격기 전대가 그 역할을 대신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육군이나 해군이 너무나도 무리하게 확장된 전선으로 인해 적의 후방으로 빠르게 기동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 속에서 공군을 이용한 타격은 독일의 잠수함 작전처럼 효율적으로 적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적의 통신 시설을 공격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은 적의 군사 기지 자체를 직접 타격하는 것이다. 제공권의 확보는 이 둘을 모두 타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폭격기를 통한 공격은 적의 군사행동을 마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군이 전선에서 아군을 공격하는데 사용할 자원을 오히려 통신시설과 군사기지의 방어를 강화하는 데 이용할 것이다. 따라서 폭격기를 이용하여 적의 군사-통신시설에 직접 타격을 가한다 전쟁의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⁴¹⁾

아직까지 ‘전략폭격’이라는 작전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것은 아니었지만, 처칠이 이 시기 세운 폭격전략은 후에 군사 전략으로 정의될 전략폭격과 상당 부분 공통점을 가진다. 처칠은 당시 단순한 폭격과 전략폭격의 차이점을 이미 자신의 전략 속에서 구상하고 있었다. 그는 적국에 행해지는 단순한 폭격은, 특히 민간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무차별 폭격은 전쟁의 종결이나 성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그는 독일군의 런던 폭격 사례를 들며 이러한 공포감은 방공호의 구축과 적절한 대피 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가능하며, 적국의 민간인들에게 공포를 심어 전쟁 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반박하였다.⁴²⁾ 처칠에 따르면 공군의 폭격 목표는 단순히 적의 대도시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는 “공습의 궁극적이고 직접적인 목표는 서부전선의 독일군이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제 1차 세계대전의 변화한 전쟁 양상에 주목한다.⁴³⁾ 제 1차 세계대전은 이전의 전쟁과는 다른 국가 간 총력전이었으며, 이는 전선의 부대에 신속한 물자의 보급과 증원부대의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어 작전을 펼치는 군대는 몇 천 톤에 이르는 탄약과 보급물자를 제한된 시간 내에 전선으로 이동시켜야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몇 천 명에 이르는 병력을 순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이 적의 후방 통신시설 및 군사시설에 대한 아군의 공습이 치명적일 수 있는 이유이다.”⁴⁴⁾

1차 대전 직후 처칠은 제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한 방공작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독립된 공군의 창설을 주장하였다. 여기에 더해 전략폭격 작전의 등장은 공군이 독자적인 군 편제를 유지해야 할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였다. 전략폭격이라는 개념은 전쟁 중 처칠의 보고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정리되었고, 많은 공군 장교들과 사령관들의 머릿속에 자리잡아가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정립되고 처칠의 공군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1차 대전이 끝난 뒤 1920년대에 들어선 뒤였다. 따라서 다음으로 처칠이 구상한 전략폭격 작전이 어떻

40) Lowe, *A Philosophy of Air Power*, p. 77에서 재인용.

41) Lowe, *A Philosophy of Air Power*, p. 77에서 재인용.

42) Lowe, *A Philosophy of Air Power*, p. 78.

43) Lowe, *A Philosophy of Air Power*, p. 78에서 재인용.

44) Lowe, *A Philosophy of Air Power*, p. 79에서 재인용.

게 실전에서 활용되었고, 어떻게 그의 공군 전략의 마지막 단계로 부상하였는지 그 과정을 추적 하겠다.

2. 전략폭격 전술의 발전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공군은 육군과 해군으로부터 그 존재 의의에 대한 공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전후 군사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대두하였고, 처칠의 ‘10년 규칙(Ten Year Rule)’⁴⁵⁾은 오히려 공군의 독립성이 공격받는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공군장관 처칠과 공군 사령관 트렌처드는 공군이 왜 독립성을 유지해야하는지를 육군과 해군 장교들에게 증명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서 강조된 공군의 역할이 전략 폭격의 수행자였다. 전쟁 이후 이라크와 인도, 소말리랜드 등의 반란과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것이 군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공군은 이라크에서 성공적인 제국 경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효과적인 군비 절감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식민지에서 공군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군은 소말리랜드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략폭격 작전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증명하였고, 향후 전쟁에서 전략폭격이 얼마나 큰 효용을 가지고 올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영국령 소말리랜드는 제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영국에게 큰 골칫거리였다. 이 지역에서는 모하메드 압둘라 하산이라는 이슬람 성직자이자 반군대장이 이끄는 세력이 몇 년째 진압되지 않은 채로 영국의 지배에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1900년에서 1904년까지 이미 세 차례에 걸친 원정을 진행하지만 이는 실패로 끝났고, 오히려 하산은 영국인들에게 ‘미치광이 무라(Mad Mullah)’라는 별명을 얻었다. 전쟁 이후 영국은 1919년 11월부터 하산의 반군 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원정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처칠은 이 원정에서 공군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식민성 장관 밀너에게 공군이 이 원정에 참여한다면 전쟁을 수월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⁴⁶⁾

처칠은 전략폭격 전술에 대한 비전을 바탕으로 공군의 전략폭격 작전을 소말리랜드 전장에서 실험해보고자 하였고, 당시 공군사령관 트렌처드를 통해 자신의 비전을 적극 실현한다. 실무자였던 트렌처드는 당시 이집트에 배치된 공군 항공기 중 6대를 소말리랜드 작전을 위해 차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항공기 6대가 6개월 동안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를 위한 예산으로 30,000파운드를 책정하였다.⁴⁷⁾ 이미 지난 4차례의 원정에 4,000,000파운드를 사용하였지만 반군 진압에 실패하고, 군비 축소 문제에 시달리던 영국 정부에게 이 제안은 절대 거절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제안이었다.⁴⁸⁾ 트렌처드의 제안은 처칠의 지원을 받아 전쟁 내각의 승인을 받았고, 1920년 1월 작전이 개시되었다.

1920년 1월 21일 6대의 영국 공군 소속 복엽기이자 폭격기인 DH-9 기종이 미치광이

45) 처칠에 의해서 1919년 제기된 주장으로, 영국군의 군비는 “향후 10년 동안 영국이 1차 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을 바탕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규칙이다. 대표적인 전후 군비 축소 움직임이었다.

46) Jeremy Black, *Air Power: A Global History*, Rowman & Littlefield, 2016, p. 47.

47) Irons, *Churchill and the Mad Mullah of Somaliland*, Pen & Sword Military, 2013, p. 382.

48) Irons, *Churchill and the Mad Mullah of Somaliland*, Pen & Sword Military, 2013, p. 382.

물라의 요새를 향해 이륙했다. 6대의 폭격기 중 1대는 물라의 진지에 폭격을 실시하여 물라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을 사살하였고, 나머지 4대는 인근의 군수 물자를 저장한 요새에 폭격을 실시하였다.⁴⁹⁾ 이 요새에는 반군의 가축인 낙타와 양들이 위치해있었다. 소말리랜드의 반군이 진압되지 못했던 가장 큰 요인은 반군들이 낙타의 기동성을 이용해 계속해서 진지를 옮겨 다니며 게릴라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 공군의 폭격으로 기동성의 핵심인 낙타와 식량자원인 양들을 잃으며 반군의 전력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공군의 전략폭격은 전쟁 내내 지속되었고, 반군은 폭격으로 인해서 전력의 큰 부분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전의를 상실하고 탈영하는 병사도 늘어났다. 결국 반군 대장 미치광이 물라는 에티오피아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병사하며 소말리랜드의 반란은 진압되었다.

물론 반란이 공군의 전략폭격만으로 진압된 것은 아니다. 육군과 해군도 작전의 큰 축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소말리랜드 원정은 공군의 전략폭격이 전쟁의 방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초의 사례이자, 공군의 독자적 작전 능력을 증명한 사례가 되었다. 공군 사령관 트렌처드는 처칠이 구상하던 전략폭격의 개념을 소말리랜드에서 그대로 실현해냈고, 이가 효과적인 작전이라는 점을 증명하였다. 이제 전략폭격은 방어 작전인 방공과 함께 공군의 공격 작전 개념으로, 공군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더 이상 공군의 독립성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고, 공격과 방어 양 축으로 공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개념이 수립되었다. 공군을 통한 처칠의 제국방위 전략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V. 결론

공군을 중심으로 한 윈스턴 처칠의 제국 방위 전략은 세 국면으로 나뉘어 점차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1909년 최초로 공군 전략을 구상할 때 처칠은 공군 임무를 항공기를 중심으로 해군 시설을 방어하는 보조자의 역할로 상정하였다. 따라서 해군 제 1경의 자리에서 그는 해군비행전대를 창설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해군비행전대의 발전을 도왔다. 하지만 제 1차 세계 대전 시기를 거치며 처칠의 공군전략은 확장된다. 이제 공군 전략은 적 항공기를 저지하는 방공 임무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공군은 육군 및 해군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군이 되었다. 하지만 처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군의 ‘공격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였으며, 이는 전략폭격 전술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1920년대를 지나며 공군의 전략폭격 전술은 실전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고, 공군은 완전한 독자적 작전주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처칠이 1909년 최초로 제국방위위원회에서 공군 발전에 대해 언급한 시기부터 1924년 그가 공군성을 떠나 재무장관직을 맡는 시점까지 그의 공군전략은 크게 세 단계에 걸쳐서 완성되었다. 또한 그의 전략 속에서 공군의 역할은 수동적 보조자에서 독자적인 방어 작전의 수행자로 그리고 공격 작전의 수행자로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며 현대적 공군의 역할과 비슷한 수

49) Black, *Air Power*, Rowman & Littlefield, 2016, p. 47.

준까지 이른다.

1차 대전 전후 시기 군사전략가 처칠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그의 해군개혁과 해군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고는 처칠의 공군 전략 발전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처칠이 공군 전략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처칠의 공군전략은 그가 군사전략가로서 상당히 선구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인다. 처칠은 제국 방위의 미래를 단순히 기존의 해군을 중심으로만 구상하지 않았다. 그는 새롭게 등장한 공군의 가능성을 예견하였으며, 조금씩 자신의 전략을 확장하며 제국 방위의 새로운 차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처칠의 공군 전략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1921년의 공군 분리 정책은 영해군의 항공력 발전 가능성을 후퇴시킨 결정이었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⁵⁰⁾ 미국이나 일본이 공군의 발전과는 별개로 해군 항공력을 발전시키며 항공모함 건조로 나아간 것과는 반대로 영국은 해군비행전대를 공군에 예속시키며 해군 항공력의 발전이 후퇴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적절한 해군 항공력의 부재로 이어져 1941년 싱가포르에서 일본 전투기가 영국의 전함 *HMS Prince of Wales*와 *HMS Repulse*를 침몰시키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칠의 공군전략을 바탕으로 한 영국 공군이 2차 대전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싸워야했던 미국과 일본이 마땅한 공군기지를 건설할 수 없었던 것과는 다르게 영국은 본국에 공군기지를 건설하여 언제든 유럽 대륙에 대한 작전이 가능했다. 방공 작전과 전략폭격을 중심으로 한 처칠의 공군전략은 영국 공군이 독일 공군을 상대로 영국 공중전(Battle of Britain)을 승리로 이끌었고, 영국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이후 유럽 본토에서 벌어진 전투 속에서 영국 공군은 수많은 전략폭격 작전을 펼쳤다. 영국 공군은 전략폭격을 통해 뤼베크, 쾰른, 드레스덴, 베를린 등 도시에 수 만 톤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이는 독일의 주요 산업 도시들을 파괴하며, 군수 산업 체계에 상당한 타격을 가했다. 따라서 영국 제국 방위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온 처칠의 공군 전략은 군사전략가 처칠이 기존의 평가보다는 더 선구적인 인물이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이를 기점으로 향후 2차 대전까지 포괄하는 그의 공군 전략을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50) Arthur, "The 'Myth' of British Seapower", p. 348.

참고문헌

사료

Churchill, Winston, *The World Crisis 1911-1918*, Penguin, 2007.

연구서

김태우, 『폭격』, 창비, 2013.

박지향, 『제국주의: 신화와 현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제국의 품격』, 21세기북스, 2018.

폴 케네디, 이왈수 외 2인 역, 『강대국의 흥망』, 한국경제신문, 2014.

Beiriger, Eugene E. A., *Churchill, munitions, and mechanical warfare: the politics of supply and strategy*, P Lang, 1997.

Bell, Christopher M., *Churchill & Sea Power*,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Benbow, Tim, *British Naval Aviation: The First 100 years*, Routledge, 2011.

Black, Jeremy, *Naval Power: A History of Warfare and the Sea From 1500*, Palgrave Macmillan, 2009.

 , *Air Power: A Global History*, Rowman & Littlefield, 2016.

Churchill, Randolph S., *Winston S. Churchill: Young Statesman, 1901-1914 (Biography Book 2)*, Rosetta Books, 2015.

Cumming, Anthony J., *The Battle for Britain: Interservice Rivalry Between the Royal Air Force and the Royal Navy, 1909-1940*, US Naval Institute Press, 2015.

Gates, David, and Jones, Ben, *Air Power in the Maritime Environment*, Routledge, 2016.

Gilbert, Martin, *Churchill: A Life*, Holt, 1992.

 , *Winston S. Churchill vol. 3: The Challenge of War 1914-1916*, Rosetta books, 2015.

Hall, David Ian, *Strategy for Victory: the development of British tactical air power, 1919-1943*,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8.

Howard, Michael, *The Continental Problem: The Dilemma of British Defence Policy in the Era of Two World Wars*, Pelican Books, 1974.

Irons, Roy, *Churchill and the Mad Mullah of Somaliland: Betrayal and Redemption 1899-1921*, Pen & Sword Military, 2013.

Kennedy, Greg, *Imperial Defence: The Old World Order, 1856-1956*, Routledge, 2008.

Lowe, James T., *A Philosophy of Air Power*,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4.

Maurer, John H., *Churchill and Strategic Dilemmas before the World Wars*, Frank Cass Publishers, 2003.

Marder, Arthur J., *From the Dreadnought to Scapa Flow, Volume 01: The Road to War, 1904–1914*,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Orange, Vincent, *Churchill and His Airmen: Relationships, Intrigue and Policy Making 1914–1945*, Harvertown : Grub Street Publishing, 2013.

연구논문

Baxter, Colin, “Winston Churchill: Military Strategist?”, *Military Affairs* vol. 47(1), 1983.

Bell, Christopher M., “Sir John Fisher’s Naval Revolution Reconsidered: Winston Churchill at the Admiralty, 1911–1914”, *War in History* vol. 18(3), 2011.

, “On Standards and Scholarship: A Response to Nicholas Lambert”, *War in History* vol. 20(3), 2013.

, “The Myth of a Naval Revolution by Proxy: Lord Fisher’s Influence on Winston Churchill’s Naval Policy, 1911–1914”,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38(7), 2015.

Collins, Michael, “A Technocratic Vision of Empire: Lord Montagu and the Origins of British Air Power”, *The Journal of Imperial and Commonwealth History* vol. 45(4), 2017.

Conway, Stephen, “Empire, Europe and British Naval Power”, *Empire the Sea and Global History*, Palgrave Macmillan, 2007.

Epstein, Katherine C., “Imperial Airs: Leo Amery, Air Power and Empire, 1873–1945”, *The Journal of Imperial and Commonwealth History* vol. 38(4), 2010.

Herman, Arthur, “The ‘Myth’ of British Seapower”, *Orbis* vol. 49(2), 2005.

Lambert, Nicholas A., “On Standards: A Reply to Christopher Bell”, *War in History* vol. 19(2), 2012.

Mallinson, Allan, “Churchill’s ‘lost’ memo: Home Secretary Winston Churchill observations on British strategy for First World War”, *History Today* vol. 63(12), 2013.

Rodger, N. A. M., “Queen Elizabeth and the Myth of Sea-Power in English History”, *Royal Historical Society* vol 14, 2004.

Wheatcroft, Geoffrey, “Savior of his country: Churchill’s greatness is proof against revisionism”, *The Atlantic* vol. 273(2), 1994.